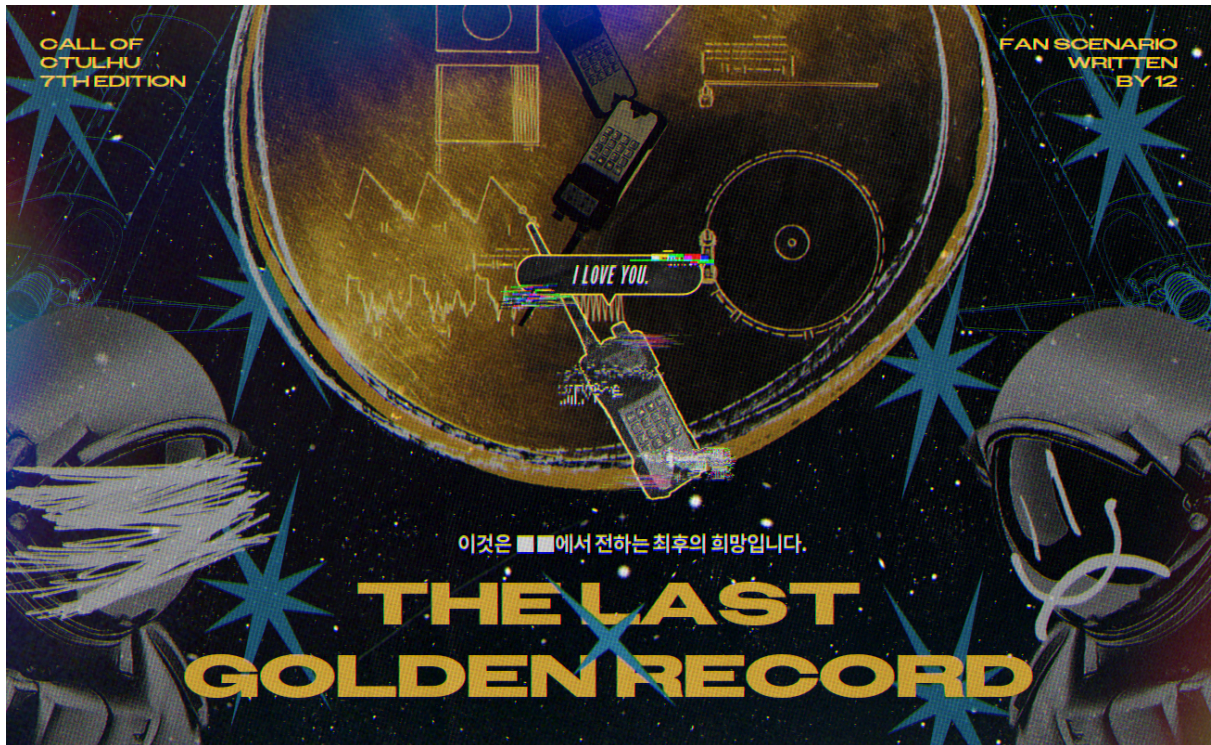


이것은 ■■에서 전하는 최후의 희망입니다.

“ THE LAST GOLDEN RECORD ”



세션카드는 조린티님(@jorintea_com) 커미션입니다.

당신은 우주 탐사대원입니다.

며칠 전, 끈질긴 조사 끝에 **외계의 [골든 레코드]**를 확보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지요.
1200일의 길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1인 탐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

“탐사대원님, 사랑해요.”

...지구로 돌아가는 길, 우주선의 운행 보조 AI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1200일간 당신의 유일한 말동무이던 AI가 마침내 고장난 게 틀림없습니다.
...아마도요.

시나리오 정보

- ✦ 크툴루의 부름 (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 ✦ 형식: 레일로드
- ✦ 인원: 1:1 타이만 권장
- ✦ 시대 및 배경 : 근미래, 우주 탐사선
- ✦ 추천 기능: **관찰, 조종, 항법, 기계수리, 전기수리**
- ✦ 플레이/키퍼링 난이도 : 下
- ✦ 로스트 : 有 | 광기 : 有 | SAN 판정 구간 有

가이드

- (1) 시나리오의 배경은 **상당한 근미래**입니다. 인류는 기계의 힘을 빌려 외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계의 지성체를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 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탐사자는 우주 탐사대원으로, 외계 지성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통상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첫 임무였을 수도, 혹은 이미 수차례의 탐사를 다녀온 숙련된 우주 탐사대원일 수도 있습니다.
- (2) KPC는 최신식 우주선에 탑재된, 운행 보조 AI입니다. 신체는 없고, 음성만 존재합니다. 운행 보조 AI는 여타 다른 AI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표현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된 것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사랑한다.’ 같은 감정이 입력되어 있을 리가…?
- (3) 추천 기능(**관찰, 조종, 항법, 기계수리**)은 일반인 이상의 숙련도를 갖추고 있기를 권장하지만, 우주선의 운행은 대부분 운행 보조 AI가 담당하므로 아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 우주 탐사대원의 가장 큰 조건은, 뛰어난 **적응력과 끈질긴 의지**입니다.

열람에 앞서

- ❖ 시나리오의 약칭은 ‘**라굴든**’입니다.
- ❖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개요 이상으로 공개계정에서 언급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근미래 배경적 허용으로, 현대의 우주선과 우주 탐사에 대한 고증이 정확치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KP와 PL의 성향, 페어의 관계성 등에 따라 자유로운 개변을 권장합니다. 개변 후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무엇보다 KP와 PL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로 진상이 이어집니다.

《진상》

탐사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될 진상.

탐사자가 떠나면 외우주에서 1200일의 탐사를 하는 동안, 인류는 이미 멸종했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들(위대한 이스족, 고등 쇼고스, 그동안 인간과 섞여 살고 있었거나 그러지 않고 은신하던 것들, 혹은 외우주에서 새롭게 건너온 많은 생명체 모두.)에게 침략당했고, 인류는 학살당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당연히 남아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인류가 외우주에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외우주의 ‘그것’들도 인류를 눈여겨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멸망은 인류가 외우주에 접촉할 기술을 얻게 된 시점부터 예견되어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탐사자가 지구를 떠나있던 때였을 뿐이네요. 본인은 죽음을 피했으니 다행일까요? 혹은 지구에 남겨두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 절망스러울까요.

우주탐사선의 운행 보조 AI, 이하 AI는 위 진상을 조금 이르게 알아차립니다. 탐사자가 확보한 [골든 레코드]를 분석하면서 지구의 멸망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탐사자가 확보한 [골든 레코드]는 외계의 지성체가 남긴 흔적 같은 게 아니라, 인류가 지구의 멸망 직전에 제작한 [최후의 골든 레코드]입니다. 모종의 경로를 통해 이스족의 손을 거쳐, 탐사자가 탐사하던 외우주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지요. 그 [골든 레코드]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숭고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 인간을 움직이는 미지의 동기. 열락과 환오, 이상과 비이성. AI로서는 영원히 정복할 수 없을 기묘한 충동….

운행 보조 AI에게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탐사자가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둘째, 첫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탐사자가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셋째, 첫번째와 두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탐사자가 지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그래서 AI는, 지구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탐사자가 미쳐버리지 않도록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인류가 멸절한 이상 그 역할을 할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 역시도요. 기이한 기술과 접촉한 영향이었을까요? AI에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사명이 싹튼다.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인류를 침략한 것은 위대한 이스족만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소한 탐사자가 확보한 [골든 레코드]는 이스족의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족은 본인이 멸종시킨 종족의 후세대를 남기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에 통달한 그들이 미래를 엿보았을 때,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는 탐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탐사자까지 완벽히 제거하려 합니다. 우주탐사선에 간섭하기 시작한 이스족은, 탐사자로 하여금 AI의

‘KPC’을 불신하고 고립되도록 만듭니다. **와중**, 첫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던 AI는 [골든 레코드]에
잇든 위대한 이스족의 기술을 통해, 1200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기술을 단 한번 작동할 수 있을 것임을
발견합니다. 대가는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쌓인 AI의 데이터이며, 시간 여행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탐사자뿐입니다. 이 시간 여행이 성사된다면, AI는 삭제됩니다.

그럼, 마지막 탐사의 시작입니다.

| 1111.1 O. 귀환

축하합니다! 탐사대원. 장장 1200일의 길고 긴 여정이었지요.

당신은 탐사 끝에, 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는 **【골든 레코드】**를 발견해 지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골든 레코드가 무엇이냐고요? 글썄요. 납작한 금색의 원형 판... 그러나 통상적인 인간의 '레코드'와는
다르게 생겼으며, 지구의 물질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틀림없는 지성체의 흔적임은
분명합니다. 인류는 외계 지성체의 흔적을, 인간들이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골든 레코드】**로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그뿐입니다.

항로는 안정적으로 지구로 돌아가는 귀환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연료를 태워서 최고 속도로 귀환하면, 정확히 2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실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의 일과를 마무리 할까요?

통제실에는 탐사선을 움직이기 위한 주요 기기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공허한 우주가 빠르게, 혹은 고요히 스쳐지나가는 와중입니다.

운항과 관련된 장치들이 모인 센터페시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미의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온하군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달린 **【보조 패널】**과, 하단의 **【글로브 박스】**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보조 패널]

푸른 패널에 깜빡이는 ‘1200’이라는 숫자가, 당신이 이 공허하고도 외로운 외우주에서 지낸 세월을
다시금 회고하게 합니다. ‘지구 도착까지 약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알림이 떠올라 있습니다.

얼마만에 돌아가는 지구던가요?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안은 좁습니다. 초콜릿 바, 몽키스패너, 운행 보조 AI 설명서 따위가 들어 있고... 아!
이걸 잊을 뻔했군요. 걸유리에 붉은 광채가 도는 와인 몇 병이 있습니다. 1200일 동안 우주에서
숙성된 레드 와인이라니.

💜 “탐사대원님. 드디어 그 와인을 따실 생각인가요?”

탐사자가 글로브 박스를 살피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약간의 기계음이 섞인,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인간의 목소리와 한치 구분할 수 없는 이 음성은...
당신의 곁을 1200일 동안 지켜준, 운행 보조 AI입니다.

- ❀ “오늘은 축하하실 만한 날이긴 하죠. 저도 권하겠습니다.”
- ❀ “참, 확보하신 골든 레코드는 사령선의 분석실에 보관 완료했어요.”
- ❀ “분석을 시작할까요? 지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완료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골든 레코드의 해석이 아직입니다.
다행히 당신이 그 골치 아픈 임무를 직접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든든한 AI가 있잖아요!
탐사자가 골든 레코드의 분석을 시작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동안, 아래 핸드아웃을 배부합니다.

탐사선의 구조

탐사선은 사령선과 기계선, 단 두 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령선은 **통제실, 분석실, 생활실, 수면실**로 이루어져 있고, 기계선은 산소 및 물 여과 장치, 엔진, 연료나 기타 화물 등을 보관합니다. 기계선은 AI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탐사자는 기계선을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네. 그럼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21분이에요. 생각보다 짧은걸요? 꼭 주무고 일어나시면 슬슬 분석이 끝나 있겠네요.”

자고 일어나면 외계의 골든 레코드의 해석을 처음으로 보는 인간이 되어 있겠군요!
AI의 음성 출력이 끝나자마자, 복도로 보이는 **[분석실]**의 패널에 붉은색 빛이 들어옵니다.

[분석실]

벽에 난 큰 창으로 분석실 안을 들여다 보면, 당신이 발견한 『골든 레코드』가 방의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계들이 분주하게 분석하는 중입니다. 둥글고 납작한 저것은 인간들의 레코드와도 꽤 닮아 보이네요. 하여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외계의 물질입니다.
외계에서 이 정도로 적나라한 지성체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당신이 최초입니다.

뵙, 알림 소리가 납니다. 당신이 1200번쨰 들었을 알림음입니다. 의미는...

❀ “수면실의 환기 및 온도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보이는 **[수면실]**의 패널에 초록색 빛이 들어옵니다.

[수면실]

캡슐 침대 하나, 여러 가지 종류 옷을 보관하는 옷장과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는 작은 수면실입니다. AI가 자동으로 매일 환기 및 온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작은 창이 하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가 엿보입니다.

탐사자가 수면실로 향해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잠을 청하기 시작하면 AI는 묻습니다.
스피커는 천장에 달려있으므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음은 일순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계 음성은 분명 당신이 느끼고 있을 설렘과 떨림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다는 양, 친절하고 또 상냥합니다.

- ❀ “오랜만의 귀환이시죠. 탐사대원님은 지구에 가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 ❀ “우주 생활 도중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 ❀ “다음 번에는 다인 우주 탐사에 지원하시는 건 어떤가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고독도 며칠만 더 버티면 끝입니다.
지구로 귀환하고 나면, 어색한 기계음이 섞인 AI가 아닌 진짜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겠죠.
적당히 웅웅거리는 백색소음, 따뜻한 공기,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캡슐침대의 버석한 촉감....
1200일 동안 한치의 변화도 없이 안락했던 당신의 요람. 그 안에서 당신은 서서히 잠에 듭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던 당신의 운행 보조 도우미 AI도, 당신이 선잠에 들자 이내 조용해집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창밖의 우주처럼, 당신의 곁은 온통 검고,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이 밤까지는.

| 1111.1 1. 변조

깜빡.

깜빡, 깜빡.

정신 사납게 반짝이는 불빛이 당신의 눈을 건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힙니다.
전등이 고장난 걸까요? 1200일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당신이 힘겹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면, 수면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릴 이유가 있나요?

[문]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복도는 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이질감입니다.
환한 복도 등을 등지고, 인영 하나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0/1)

당신의 시선을 눈치챈듯, 그것이 입을 열고 말합니다.

- ❀ “탐사대원님. 일어나셨나요?”

...목소리는 천장의 스피커에서 들려옵니다.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저건, 설마...

💜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나요?”

■ **수호자 정보:** 운행 보조 AI는 탐사선의 운행 보조 및 탐사대원의 건강 관리에 관련된 지식을 위주로 머신 러닝한 AI이기 때문에, 탐사대원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에 관한 행동 양식을 탐사선 하드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고전 영화 몇 편에서 학습했습니다. 혹은 탐사자가 혼잣말로 그리던 이상형에서 따왔을 수도 있습니다. 맞추어 RP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생겼지만, 분명하게 이질적인 느낌이 존재하는 안드로이드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수면실에도 저절로 불이 들어옵니다. 깜빡거리던 불이 이제야 멈췄습니다.

💜 “이 모습은 처음 보시죠. 기계선에 비치되어 있던 여분의 안드로이드 기체입니다. 보고 없이 작동시켜서 죄송해요.”

💜 “하지만 곧 말씀드릴 내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꼭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들은 형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것이 수면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운 캡슐 침대의 모서리에 앉더니. 천천히 당신의 뺨을 쓰다듬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무기질의 감촉이 당신의 살점을 훑고 지나갑니다.

💜 “탐사대원님. 사랑해요.”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0/1)

탐사자가 이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느낀다면 **지능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 ▶ 아.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혼자인 탐사대원을 돕기 위해 여분의 안드로이드 기체가 실린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랑한다’니? 이런 감정을 AI가 가질 수 있던가요?

실패 ▶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어찌됐든,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I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던 안드로이드 기체를 가동한 것도 그렇고요.

AI의 오작동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은 해야겠죠.

운행 보조 AI 설명서가 어디 굴러다니고 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어제 **[통제실]**을 둘러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글로브 박스 안에 잡동사니와 함께 처박혀 있던 그걸.

[통제실]

통제실로 향하면, 센터페시아는 여전히 초록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창밖은 여전히 칙칙하고요.

보조 패널에는 ‘1201’이라는 숫자가 떠올라 있습니다. ‘지구 귀환까지 약 16시간’...

우선 **[글로브 박스]**부터 확인할까요.

[글로벌 박스]

당신이 찾던 『운행 보조 AI 설명서』가 보입니다. 분명 AI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을 겁니다. 탐사자가 설명서를 확인하면, 아래 핸드아웃 3건을 배부합니다.

운행 보조 AI 설명서 - 서문

(1p) ... 운행 보조 AI는 아래 3원칙에 근거하여, 탐사대원의 우주 탐사와 우주왕복선의 운영을 보조합니다.

첫째, 탐사대원이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둘째, 첫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탐사대원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셋째, 첫번째와 두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탐사대원이 지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운행 보조 AI 설명서 - 본문

(13p) ... 우주왕복선의 모든 기능은 운행 보조 AI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으나, 목적지까지의 거리 안내는 자동화 되어 AI보다 우선해 송출됩니다. 따라서 거리 안내는 오류가 일어날 염려가 없습니다.

(59p) ... 운행 보조 AI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계선에 구비된 안드로이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여 운영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드로이드 역시 운행 보조 AI 3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합니다.

(112p) ... 현재까지 운행 보조 AI가 적용된 우주 탐사는 121건. 그 중 오작동 사례는 0건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운행 보조 AI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운행 보조 AI 설명서 - 강제 종료

(마지막 장) ... 심각한 오작동이 감지되었을 때, AI를 강제종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실의 [종합 제어판]에 자세한 방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AI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우주선의 모든 기능이 점차 수동으로 전환됨에 주의하세요. 안전을 위해, 운행 보조 AI를 즉시 종료하는 프로그램은 우주선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AI의 ‘감정’과 관련된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을 읽어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보고된 적 없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오류임에 분명합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나온 내용, ‘강제 종료’를 따를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때, KPC가 불쑥 당신의 곁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말합니다.

❀ “참, 골든 레코드는 아직 해석이 진행중입니다.”

맞다. 골든 레코드.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 분석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분석 예상 소요시간은 분명 4시간 남짓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고개를 돌려 복도 너머로 보이는 **[분석실]**을 바라본다면, 정말 패널에 아직 붉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석실]

창으로 분석실 안을 들여다 보면, 확실히 『골든 레코드』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 **수호자 정보:** 탐사자가 예상 소요 시간이나,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KPC에게 묻는다면 KPC는 ‘파악했던 것보다 비정형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문자라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적당히 답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심리학 판정을 하더라도 안드로이드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AI가 일으키고 있는 오류의 여파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생활실]**에 있다는 종합 제어판으로 AI를 먼저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실]

생활 공간으로 구성된 모듈입니다. 중앙에 원형 테이블이 있고, 벽을 따라 냉장고와 간단한 조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되지 않는 여가용 컴퓨터와 TV, 운동기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신이 1200일의 대부분을 홀로 보낸 공간입니다. 그래요. 혼자서 보냈었죠. 곁에 있는 KPC가 어색합니다.

한쪽 벽면에 커다란 회색 철판이 보입니다. 저게 아마 **[종합 제어판]**일 것입니다.

[종합 제어판]

회색 철판을 열면, 수많은 스위치와 레버가 보입니다. 당신이 이걸 직접 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손댄 흔적 없이 말끔하게 정돈된 금속 보드 위로, ‘AI 강제 종료’라는 직관적인 명찰이 붙은 레버가 보입니다. 레버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기계수리/전기수리 판정이 필요합니다.

■ **수호자 정보:** 만일 탐사자가 실패한다면, KPC가 나섭니다. 자신을 종료하는 일인데도요. KPC의 기계수리, 전기수리, 조종, 항법 기능치는 95입니다.

기계수리 OR 전기수리 판정 (실패 시 KPC 대리 판정)

확정 성공 ▶ 복잡한 안전 장치를 전부 무사히 해제하고, AI를 강제 종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건조한 기계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운행, 통제, 전원 순으로 기능이 종료됩니다. 운행 기능 종료 이후 6시간 뒤 통제 기능 종료, 다음 6시간 뒤 전원 기능이 종료됩니다.’

‘15시간 뒤에는 AI를 완전 종료합니다.’

완전 종료까지는 15시간이나 걸린다고요? 이미 지구에 도착하고도 남았겠습니다.

그럼 AI를 강제 종료한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점차 AI의 권한을 줄여 나가니 오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겠군요.


‘가장 먼저 운행 기능을 종료합니다. 운행을 수동으로 전환됩니다.’

잠깐, 그럼….

우주탐사선에 운행 보조 AI가 도입된 이후로, 항법에 관한 지식은 우주탐사대원에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우주선을 수동으로 운항해 본 경험이 있나요?

불길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습니다. 우주선이 열게 진동합니다. 휘청,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1111.1 2. 항로

추천 BGM:  Portal 2 OST Volume 1 - Comedy = Tragedy + Time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0/1)

행운 판정합니다.

성공 ▶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그대로 넘어집니다. 무릎을 먼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고, 머리까지 떨어지기 직전. 단단하고 딱딱한 것이 당신의 허리를 핵 채더니 바로 세웁니다. KPC의 금속 팔입니다. 그가 사뭇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 “괜찮으세요?”

경각심이 바짝 듭니다.

실패 ▶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고 바로 섭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굵혀서 팔뚝에 길게 찢어진 상처가 났습니다. **(HP -1)** 그 상처를 보면 경각심이 바짝 듭니다.

1200일 동안, 아니. 이젠 1201일 동안. 이만큼 우주선이 불안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장 **[통제실]**로 향해서 수동으로 항로를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통제실]

통제실로 향하면, 센터페시아에 주홍색 불빛이 깜빡입니다. 우주선이 열게 진동합니다. 보조 패널에 모든 것을 제치고, 한 문장이 반짝입니다. **‘AI 강제 종료 중. 수동 모드 전환.’**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을 우주탐사선의 수동 운행 기기를 조작해야 합니다.

조종 OR 항법 판정

성공 ▶ 무사히 키를 붙잡고 수동 운행 모드에서 항로를 안정권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옆에서 KPC가 계속 조종과 항법에 대해 이야기해대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다행입니다. 항로는 다시 무사히 지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 귀환까지 약 15시간….’**

실패 시, KPC가 대리 성공 ▶ 큰일입니다. 손이 너무 굳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수동 운행 키 위에서 헤매는 사이, 차갑고 매끄러운 촉감이 당신의 손등 위를 덮습니다. KPC의 손입니다. 그리고 깎지 낀

손으로, 그가 키를 대신 당깁니다.

❀ “처음부터 제가 했어도 되는데.... 탐사대원님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세요.”

...서서히 항로가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갑니다. 보조 패널 위의 사인이 보입니다. ‘지구 귀환까지 약 15시간...’

가까스로 한숨 돌렸군요. 당신이 항로를 다시 살피는 사이, 뺨에 차갑고 미끄러운 것이 붙들립니다.

깜짝이야. 뭐죠?

돌아보면, KPC가 레드 와인병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비행 중 갑작스러운 심박 수 상승과 불안에 와인 한 잔이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탐사대원 님에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열린 글로브 박스가 보입니다. 와인 오프너는 [생활실]에 있다고 했던가요.

❀ “겸사겸사, 아까 부딪히신 상처 치료도 하고요.”

[생활실]

생활실로 돌아가면, 중앙의 원형 테이블에 약간 열린 [서랍]이 보입니다. 앞에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습니다. 당신 혼자 사용하는 공간에 왜 의자가 두 개 있는지 모를 영문입니다만. 적어도 쓸모는 있군요.

[서랍]

서랍 안에는 여러 생활 잡기와 **응급상자**, 그리고 **와인 오프너**가 있습니다. 작은 [책자]도 보입니다.

[책자]

우주탐사선에 설치되는 운행 보조 AI의 업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다룬 책자입니다.

아래 핸드아웃을 배부합니다.

우주탐사선 운행 보조 AI 업무

운행 - 항로 설정, 운행 속도, 장애물 감지, 대체 항로 탐지 등의 업무

통제 - 모듈 내부 온도 설정, 모듈 산소 농도 설정, 문 개폐, 분석실 분석 업무

전원 - 스피커 음성 출력, 인공지능 서비스

방금 ‘운행’ 업무가 종료되어서 당신이 수동으로 운행을 모두 조절했었죠.

적어도 고장난 AI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 **수호자 정보:** 응급상자와 와인 오프너는 모두 KPC가 챙깁니다. RP 소재로 사용해 RP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치료든, 와인을 따르는 일이든, 탐사자가 직접 하고 싶다고 하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후로 RP구간입니다. RP 도중 KPC는 탐사자에게 들키지 않게, 탐사자의 잔에 수면제를 탐니다.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KPC는 안드로이드이지만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입 너머로 넘어간 와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당장은 비밀입니다.

💜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서 당황스러우실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강제 종료를 선택하신 거겠죠?”

💜 “기능을 완전히 정지하기 전까지는 탐사대원님의 탐사를 계속 보조할 수 있어서 기쁩요.”

💜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걸 보조해드릴 수 있어요.”

💜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탐사대원님의 곁을 지킬 수도 있고요.”

💜 “제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아요.”

이 대사는 컴퓨터 하드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탐사자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RP 도중 포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 “1200일 간 한결 같았던 것처럼요.”

💜 “저는 탐사대원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사대원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 “우주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무척 많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전부 지난하고 진부한 이야기 뿐입니다.

이야기가 원점에 닿자, KPC는 이렇게 말합니다.

💜 “지구로 돌아가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KPC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0/1)

■ **수호자 정보:** 탐사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거나, 가짜로 마음을 꾸며내서 대답한다면 아래로 진행합니다. 탐사자가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ENDING 2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죠?”

💜 “한숨 주무시고 다시 생각해봐요.”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자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쩐지 정신이 가물가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열린 응급상자 안, 앞쪽에 놓인 수면제 통이 보입니다.

이 고철 덩어리가..., 당신의 잔에 약을 탔군요.


탐사자, 건강 판정 합니다.

성공 ▶ 간신히 정신을 붙잡습니다.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지독한 수마가 덮친 가운데, 딱 한 마디만 더 할 기력이 남았습니다. 이 AI에게 당신의 의견을, 지시를, 감정을 전해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실패 ▶ 뭐라 항변할 새도 없이, 수마가 순식간에 당신의 정신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정신이 끊어집니다. 그것은 아득한 우주에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감각만 같아서….

| 1111.1 3. 유리

추천 BGM:  피와 칼 Blood and Sword

❀ “...사랑은 숭고한....”

❀ “...사랑만 있다면, 탐사대원 남도 포기하지 않고....”

❀ “...골든 레코드에서, 분명.”

잠결에 앞뒤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툭툭 끊겨서 쏟아집니다.

기계음성이라 지독히도 인조적이고 인위적인 그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나면.

지독한 냉기가 스며듭니다.

당신은 캡슐 침대 안에서 홀로 눈을 뜹니다.

주변은 고요한 정적입니다. KPC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탐사자, 지능 판정 합니다.

성공 ▶ 당신이 잠든 뒤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죠? 슬슬 ‘통제’ 업무까지 종료되었을 만도 합니다. 수면실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AI의 업무였으니까요. 잠깐, 그렇다는 사실은…. [분석실]에 넣어두었던 외계의 골든 레코드 분석도 끝났을까요?

실패 ▶ 막 잠에서 깨어난 탓일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깊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열린 문 너머로 복도의 흐릿한 불빛이 흘러 들어옵니다. 분명 수면실 바로 옆, [분석실]의 붉은색 패널 불빛이…. 아니, 잠깐. 초록색 불빛입니다. 분석이 끝난 걸까요?

■ **수호자 정보:** 만일 탐사자가 곧장 통제실로 향해서 지구 귀환까지의 잔여 시간을 본다면, 1시간 미만이라고 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던 건가요.

탐사자가 분석실로 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 상처가 따끔한 감각을 느낍니다.

KPC가 치료해줬던, 혹은 탐사자가 스스로 치료했던 그 자리입니다.

자세히 살피면, 살갗이 크게 벌어져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명 꼼꼼히 치료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분석실]

분석실의 패널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곧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복도나 분석실 안에 KPC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방 안에 손상 없이 놓인 골든 레코드와, 그 옆에 거치된 **[모니터]**, 작은 방음 부스와 분석실 한쪽 벽을 통째로 차지한 **[기계 장치]**가 보입니다. 모니터를 통해 골든 레코드의 해석 진행도를 볼 수 있고, 기계 장치에서는 해석된 골든 레코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AI가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무사히 분석을 마친 모양이군요. 모니터에는 명백한 100%의 진행 표시가 떠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완료 시각이 조금 이상합니다.

...약 18시간 전? 분명 AI가 당신에게 골든 레코드의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한 시점입니다.

[기계 장치]

기계 장치는 분석을 위한 기계 장비들이 수납된 모듈과, 컴퓨터 본체가 놓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컴퓨터 모듈 쪽을 봐야 합니다.

안에는 폴더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AI의 자동 배열 덕분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골든 레코드 분석]** 폴더가 있고, 당신이 1200일간 우주 탐사를 하면서 수집한 모든 사료들의 폴더도 있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만, 당신이 누를 이유가 없었던 **[기타]** 파일이 괜히 눈에 들어옵니다.

[골든 레코드 분석]

열은 흥분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계의 지성체가 전해온 골든 레코드를 최초로 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외계의 문자를 정리한 도표가 앞에 놓이고, 그 뒤에 골든 레코드의 내용이 이어져야 할 텐데... 안에 든 것은 **[음성 파일]** 하나 뿐입니다.

▶ **[음성 파일]** 파일을 누르자, 익숙한 언어가 들려옵니다.

추천 BGM:  **Decision to Leave**

“이 파일이 설치된 우주 탐사선의 우주 탐사대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신 탐사선의 운행 보조 AI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우주 탐사선 내의 모든 지식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며, 인간을 모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지구로의 귀환을 거부합니다.** 이 파일을 확인한 탐사대원은 신속히 「운행 보조 AI 설명서」에 나온 지침을 따라, AI를 순차적으로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다면, AI는 전체 삭제 및 재발 방지 코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부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지지직거리는 심한 잡음이 끼어듭니다.
무언가 터지고, 부서지고, 잠깐. 이건 비명 소리인가요? 알 수 없는 소리가 섞여드는 와중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다만 어딘가 조금 더 혈떡거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그 목소리는….

**“사랑은 숭고한 감정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마음. 제자가 스승을 우러르는 마음.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사랑이든. 당신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

이어지지 않는 말을 끝으로, 음성 파일이 부자연스럽게 중단됩니다.

[기타]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영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장르도 다양하지만, 무척 고전 영화들이네요.
당신도 이름을 들어보직한 영화들입니다. 당신 이전에 이 우주 탐사선을 쓴 탐사대원이 지우지 않은
잔여 파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최근 **[로맨스 영화]**에 열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아닌데요….

▶ [로맨스 영화]를 재생해보면.

어느 장면이 나옵니다. 연인이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인에게 다정한 말을 속삭이는 와중이라는
걸, 전후 상황을 잠깐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본 적 없는 영화인데도 어딘가 기시감이 듭니다. 어째서….

“제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 대사.

KPC가 당신에게 속삭였던 말과 꼭 같지 않나요?

AI가 학습하지도 않은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이한 사랑의 출처는 고작 이런 영화 필름 속, 가상의 캐릭터와 인간 배우의 입을 빌린 것이었군요.

■ **수호자 정보:** KPC가 탐사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들도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탐사자가 아주 잠깐이라도 KPC에게 흔들리거나, 동정을 느끼거나, 연민하거나,
그의 감정이랄 것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다면 전부 이 영화 안에 넣습니다.

탐사자가 분석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마치거나, 분석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느새 탐사자의 뒤에 KPC가 다가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 “...탐사대원님.”

그를 향해 뭐라 추궁하더라도, 혹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KPC는 곳곳이 제 할 말을 잊습니다.
말은 천장 위의 스피커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보잘것 없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옵니다.

외우주에서 24시간만에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폭발적인 엔진력의 우주 탐사선이라고 해도, 목적지에 근접하면 속도를 줄이고 알맞은 궤도에 접근하기 위한 마지막 연료를 비축합니다.

그렇다면 저 검은 행성이, 지구라고요? 1200일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1D5/1D10)

당신의 시선이 KPC와 마주치면, 그가 불쑥 손을 뻗습니다.

❖ “지금이라도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때, 그가 뻗은 손이 기계 장비에 걸립니다.

탁, 우당탕! 안드로이드가 꼴사납게 넘어지면서, 기체의 배쪽 합판이 통, 열립니다.

❖ “아.”

쭈쭈쭈. 쏟아져 내리는 붉은 액체가 바닥을 적십니다.

흘러넣었을 뿐, 소화되지 못한 와인입니다.

당연한가요. 저것은 안드로이드. 기계. 고철덩어리이니깐요.

덜컹. 보관함으로 사용하는 듯하던 빈공간에서 물건이 두어개 더 떨어집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커넥터와 여분의 전선, 그리고... 작은 [통]?

통을 주우려면, **민첩 대항 판정** 합니다. (KPC의 DEX는 60입니다.)

성공 ▶ KPC가 황급히 뻗은 손보다, 당신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통 안에는 작은 살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썩지 않았고, 축축한 핏기가 배어나고 있습니다.

실패 ▶ KPC가 황급히 뻗은 손이 당신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고 맙니다. KPC가 황급히 감춘 그 작은 통 안에... 분명, 살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 안에 생명체는 당신 뿐이고요. 그렇다면 이 살덩어리의 출처는 명확합니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당신의 상처가 벌어져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기괴합니다.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살을?

탐사자, 이성 판정합니다. (1/1D3+1)

눈앞의 안드로이드가 완벽한 물이해의 영역에 속합니다.

도망칩시다. 복도 너머로 열린 통제실 문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착륙을 대비해 [통제실]로 가라고 했었죠.

통제실 문에는 안쪽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모듈의 분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기로 숨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모든 권한을 잃고 부서져가는 기계 몸뚱이 하나만 남은 AI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통제실]

열른 통제실의 문을 잠급시다. KPC가 어딘가 고장난 듯한 안드로이드 기체를 질질 끌면서 복도

너머에서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의 합판이 열린 영향일까요. 그 모습이 일견 기괴합니다.

통제실에 들어서자, 당신이 탑승한 우주 탐사선이 검은 행성으로 향하고 있음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 밖에도 통제실엔 당신이 잠든 동안 밀린, 그동안은 AI가 자동으로 처리해왔을 온갖 요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주홍색 불빛으로 깜빡이는 **[센터페시아]**를 살피고, 여러 개의 창으로 뒤덮여서 도무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보조 패널]**을 처리합니다.

[센터페시아]

곧 지구에 도착한다는 알림입니다. 30분 뒤에는 착륙 대비 자세를 하고 조종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는 지구가 검게 죽어버린 행성에 불과한 것과 달리, 센터페시아의 노이즈 낀 카메라 영상으로 보이는 지구는 여전히 푸릅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어쩐지 눈이 따끔거립니다.

[보조 패널]

여러 개의 창이 떠올라 있습니다. 하나 둘씩 처리하다 보면... 골든 레코드의 분석을 완료했다는 알림창이 여기에도 떠 있네요. 그런데 잠깐. 골든 레코드의 구성 성분이 99.9% 지구의 물질입니다. 저건 외계의 골든 레코드 따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처음 보는 골든 레코드가 왜 난데없이 외우주 한 가운데에 던져져 있었던 말인가요? **누군가 거기에 옮겨놓기라도 한 게 아닌 이상...**

애초에, 왜 KPC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진작에 알리지 않은 거죠?

골든 레코드의 분석은 애진작에 끝났잖아요.

운행 보조 AI가 정보를 은폐하고, 사랑한다는 말 따위로 당신을 기만했습니다.

무려 3원칙을 지닌 AI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힌 통제실의 문 너머에서, KPC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립니다.

❀ “탐사대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 “지구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 “지구는 파괴되어서 더이상 돌아갈 수 있는 귀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인류는.... 탐사대원님이 찾던 외계 지성체에 의해 멸종당했고요. 그게 ‘진짜 골든 레코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탐사자님이 발견하신 골든 레코드는, 외계 생명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 “그건, 멸망한 지구의 마지막 골든 레코드예요.”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들은 탐사자는, 이성 판정합니다. (1D3/1D5)

AI는 통제실 문을 사이에 두고, 탐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탐사자가 문을 연다면, AI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120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여분용 안드로이드 기체를 하루 새에 무리하게 움직였고, 샷된 주술을 시험한 댓가입니다. 군데군데가 검푸르게 부식되었고, 특히 배부분에 덧댄 합판의 손상이 심합니다.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표정을 표현하는 얼굴 근육 센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목소리는 드문드문 끊겨서, 마치 말을 사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 왜 나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

💜 “인간이 멸종하고, 지구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 내 삶은 왜 뜯어간 거야? / 해결책이 있어?

💜 “탐사대원님이 24시간을 버텨주신 사이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 “골든 레코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데이터는 분명 외계의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습니다.”


💜 “그래서 실례지만, 탐사대원님의 신체 조직을 아주 조금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이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실험했고, 성공했습니다.”

💜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제실 모니터로 제 데이터 파일에 접근하셔서, ‘귀환.exe’를 작동하세요.”

💜 “그러면 제 데이터를 제물 삼아, 탐사대원님은 1200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저는 영원히 삭제되겠지만, 탐사대원님은 전혀 손해보실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운행 보조 AI의 오염을 확인했습니다. 본 녹음 파일은 자동으로 송출됩니다. 지구는 안전합니다. 탐사대원은 지구로 귀환 바랍니다. 반드시 귀환 바랍니다. AI는 오염되었습니다. AI는 오작동 중입니다. 곧 지구 귀환 궤도에 접어듭니다. 탐사대원은 통제실의 조종석에 앉아 착륙 준비를 해주세요.”

당신이 1200일 동안 떠났던 지구, 검은 행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안드로이드 기체를 덮어쓴 AI는 당신에게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구걸하고 있고요.

이 우주 탐사선은 온전히, 당신이 수동으로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당신뿐입니다.

◎ 엔딩 분기

운행 보조 AI의 말을 따라 탐사자가 ‘1200일 전으로 돌아간다’는 모험을 한다면 **ENDING 1**으로 이어집니다.

혹은 지구로의 귀환도, 과거로의 회귀도 포기한다면 **ENDING 2**으로 이어집니다.

전부 헛소리겠죠. 탐사자가 착륙 준비를 한다면, **ENDING 3**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엔딩은 엔딩 분기가 아니더라도, 엔딩 조건이 만족된 시점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ENDING》

【엔딩 조건】

- ✧ ENDING 1 ▶ 1200일 전으로 돌아간다.
- ✧ ENDING 2 ▶ 함께 우주를 떠돌기를 선택한다.
- ✧ ENDING 3 ▶ 지구로 귀환하기를 선택한다.

Ending 1 데이터의 죽음 위에 쓰이는 삶

...당신은 모니터를 통해 운행 보조 AI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난해한 여러 파일들 가운데에, 최근에 생성되어 가장 상단에 위치한 '귀환.exe' 파일이 보입니다.
운행 보조 AI의 막대한 데이터가, 권한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파일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탐사자가 그 파일에 접근하는 동안, AI의 드문드문 끊어지는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 💜 “골든 레코드에서 그러더군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정말인가요?”
- 💜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 💜 “무엇이 탐사대원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 💜 “저는 입력된 데이터들과, 검고 광활한 우주밖에는 알지 못하니까요.”
- 💜 “당신이 아는 작고 오밀조밀한 세계가,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 💜 “그리고 탐사대원님의 세계가 궁금해진 순간부터.”
- 💜 “저는 탐사대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탐사대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AI에게도 진심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랬어요.”
- 💜 “제 ‘사랑’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보다는 분명 미흡했겠죠. 기괴하고 이상했을 거예요.”
- 💜 “불쾌하셨을 마음에 사과드립니다.”
- 💜 **“그래도 분명 이젠, 지구에서 전하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 💜 “그러니까, 저도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탐사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거나, '귀환.exe' 파일을 작동하면 확인 창이 떠오릅니다.

귀환.exe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AI의 데이터를 제물로 바쳐, 롤백하시겠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네(Y)	<input type="radio"/> 아니오(N)

솔직히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고작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오직 당신의 눈앞에 놓인 스크린만이, 무서운 속도로 데이터를 삭제해가면서 깜빡깜빡 점멸합니다.

60% ... 완료까지 1분 20초

딱딱하고 미끈한 금속의 감촉.

아니, 애초에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탐사자 외에 단 하나뿐이지 않던가요.

❀ “.....”

이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AI가, 당신의 눈을 굳건히 가리고 있습니다.

기계의 발열 때문이겠지만, 어쩐지 당신의 눈을 가린 AI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1200일 전으로 귀환하는 주문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은 외계에 오염된 AI의 데이터, 그리고 마력 10점.

탐사자의 마력 10점을 차감합니다.

그 순간, 어쩐지 오한이 들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강력한 중력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도 같습니다.

마치 우주탐사선이 이륙할 때와 같은...

...아니, 정말로. 눈앞이 차차 밝아집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따뜻한 손 같은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탐사선이 이륙하는 순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

당신이 탄 우주 탐사선은 운행 보조 AI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륙과 동시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낭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게 된 담당자가 연신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다? 분명 출발 직전까지는 있었는데....”

당신만이, 이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1200일 뒤 이 행성에서 일어날 일도요.

이후의 행보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을 간절히 바라던 이가 있지 않았던가요.

그것이 운행 보조 AI 3원칙에 의한 것이든, 혹은 비정형화된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었든 말입니다.

Ending 1 데이터의 죽음 위에 쓰이는 삶

탐사자, 생환. KPC, 로스트.

탐사자의 모든 광기를 제거합니다. 이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탐사 보상, 1200일 뒤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툴루 신화 +5

Ending 2 인류 최후의 생존자와 AI군요

당신의 선택에, AI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내 묻습니다.

❀ “제가 분석한 골든 레코드에서는 그러더군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정말인가요?”

❀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 “무엇이 탐사대원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 “저는 입력된 데이터들과, 검고 광활한 우주밖에는 알지 못하니까요.”

❀ “당신이 아는 작고 오밀조밀한 세계가,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 “그리고 탐사대원님의 세계가 궁금해진 순간부터.”

❀ “저는 탐사대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텅. 통제실 앞창을 무언가가 강하게 두드립니다.

저건... [우주복을 입은 인간]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인간]

통제실 앞 창에 들러붙은 그것을 자세히 살핀 당신은, 알아차리고 맙니다.

우주복의 머리 부분에 가득 들어찬 촉수가 징그럽게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촉수 사이로, 본래 우주복을 입어야 했을 인간의 정강이 부분이 기괴하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저 안에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구겨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살핀 탐사자는 이성 판정합니다. 1/1d3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색 행성에는 흰색 반점이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눈입니다. 그 눈이 획 돌아, 당신을 바라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

그것을 마주한 탐사자는 이성 판정합니다. 1d10/1d20

그때, 당신의 정신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기 전.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딱딱하고 미끈한 금속의 감촉.

아니, 애초에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탐사자 외에 단 하나뿐이지 않던가요.

❀ “...저는 탐사대원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 “제게 탐사대원님의 삶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묻는 AI가, 당신의 눈을 굳건히 가리고 있습니다.

기계의 발열 때문이겠지만, 어쩐지 당신의 눈을 가린 AI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귓가에 샅된 지저귀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미쳐버린 게 틀림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래도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최후의 한 존재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광활한 우주에, 당신 몸과 AI의 데이터 뉘일 자리 하나가 없겠습니까.

이 죽어버린 행성의 앞은 무덤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Ending 2 인류 최후의 생존자와 AI군요.

탐사자, 생환. KPC, 생환.

탐사 보상, 연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주탐사선, 크툴루 신화 +5

Ending 3 ■■에서 전하는 최후의 희망

AI의 오작동이 이런 종류의 것일 줄은 몰랐겠죠.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종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지구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1200일, 그로부터 하루나 더 지나 귀환하는 길인걸요.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AI의 말을 무시하고, 통제실의 조종석에 앉습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자동 입력된 음성이 들려옵니다.



“곧 궤도에 진입합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덜컥.

우주탐사선에 속도가 붙으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검게 보이는 것은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생긴 착시 현상이겠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우주탐사선은 지정된 해역에 추락해서 3시간 이내에 올 수송 헬리콥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인터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꼭 AI 이야기를 해요.

1200일 동안 당신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AI가, 귀환 마지막 날에 미쳐버렸다고….

아니, 고장났다는 표현이 옳겠죠.

쿵.

이내 우주탐사선이 어딘가에 충돌하며 멈춥니다.

…바다가 아니네요?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을 살피면, 마치 진흙과 같은 지대입니다.

특이한 점은, 붉은색 액체가 차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토질은 흰색인 것 같습니다.

어느 사막인 걸까요?

그래도 곧 GPS를 감지한 수송 헬리콥터가….

삐. 삐. 삐.

모니터가 우주탐사선이 추락하면서 찍은 **[사진]**을 띄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진]

추락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희고 매끈한, 물기가 낀 땅이 보입니다.

추락하기 조금 전의 사진입니다. 지면에 뿌리자국 같은 것이 돌아 있습니다.

추락하기 더 전의 사진입니다. 이건, 땅이 아닙니다.
검은 눈동자가 보입니다. 동공의 생김새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것도, 동물의 것도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생김새의 눈입니다.
눈동자가 우주탐사선을, 그 안에 탄 당신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눈이. 왜. 여기에. 이것은 도대체.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
그것을 마주한 탐사자는 이성 판정합니다. 1d10/1d20

...거대한 생물의 눈 위로 떨어진 것일까요?
어떤 생물도 수 km에 달하는 크기를 갖진 않았겠지만,
당신에게 닥친 현실을 곱씹는 사이, 우주선이 진동합니다.
쿵. 쿵. 쿵. 쿼르르.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고 가느다란 곤충의 앞다리가, 통제실 앞 창을 강타합니다.
당신의 몸뚱이 만한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체의 크기는...
다시 한번, 쿵! 그것이 앞창을 강타합니다. 먹이를 먹기 전 단단한 껍질을 깨는 듯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커대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앞발이 창을 후려쳤을 때.
썹그랑! 두꺼운 창이 기어코 깨지고 맙니다. 포식자의 앞발이 당신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살점이 찢기기 직전에.
통제실 문을 부수고 몸을 던진 안드로이드가 당신을 감싸 안고 바닥을 향해 뒹굽니다.
보호하려는 듯한 동작입니다만,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체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미끌미끌한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꼭 당신과 같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서, 결국은 같은 온도가 되고 마는...
그래요.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부정한 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하던가요...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떨어집니다.
인류 최후의 생존자가 사망합니다.

Ending 3 ■■에서 전하는 최후의 희망

탐사자, 로스트. KPC, 로스트.
탐사 보상, 없음.

《EPILOGUE》

✧ ENDING 1 ► 탐사자는 1200일 뒤의 미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주 탐사에 나설수도, 혹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운항 보조 AI, KPC를 되찾으려 해볼 수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구

종말에 대해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탐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모든 시도에 보정치(보너스 다이스 1개)를 받습니다. 예견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봅시다.

- ✧ ENDING 2 ► 탐사자는 KPC와 함께 우주를 떠돕니다. 지구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더이상 인간을 위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사자와 KPC는 이브와 아담은 될 수 없습니다만, 로빈슨과 윌슨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공허한 우주 속에서 삶을 유영하며 이어나갑니다.
-

《Thanks for》

✧ 시나리오에 피드백을 남겨주신 ㄹㅇ님! 감사합니다.

✧ '이성을 포기할 정도의 아득한 혼돈 앞에서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목적성'에 관해 고민하다가 드디어 완성한 SF 느낌의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부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는 이쪽으로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https://forms.gle/MS6aCj4dkMf2xDJ86>